지류까지 확대…4대강 정비사업 탄력

영산강 준설 통해 물 저장기능 회복

계획보다 4년 빠른 2011년까지 완료
황룡강·보성강 등 포함 시너지 효과

4대 강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영산강 정비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11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도 병행돼 4대강정비사의 시너지효과를 꾀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4일 '광주·전남 신성장동력설명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전국 4대 강 정비사업 가운데 영산강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영산강은 산과 같은 장애물 없이 평탄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박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정부와 전남도의 사업추진 일정이 예정보다 4년가량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영산강 정비 프로젝트는 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닥 준설 위주로 진행되며, 영산강 뱃길 복원과 함께 수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차장은 "영산강 정비사업은 토지보상비의 비율이 낮아 사업비의 대부분이 토목·건설비에 사용될 것"이라며 "강 바닥 준설을 통해 뱃길복원과 함께 '강의 물 저장기능'을 되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4대강 정비사업 확대 계획도 발표해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대상 유역에 흘러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정비해 하천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에 따라 전남에서는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국가하천인 황룡강, 고막원천, 지석천, 함평천 등 4개와 지방하천인 광주천, 영암천 등 163개가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 섬진강 수계에서는 국가하천으로 보성강 1개와 한천천 등 지방하천 103개가 정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국무차장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기존의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인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기능을 포함해 본류와 지류를 연결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마무리되면 영산강 수계는 풍부한 수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뱃길복원사업이 벌어지는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새로 만들어지는 인프라가 융합돼 서남권의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생태와 경관이 빼어나 환경보전형으로 정비되는 섬진강 수계에서는 국가하천으로 보성강 1개와 한천천 등 지방하천 103개가 정비대상으로 떠올랐다. 섬진강 수계는 자연여건을 최대한 살려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산강 유역 정비대상 국가하천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범위에 황룡강을 비롯해 4대 강에 직접 유입되는 국가·지방하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은 백암산에서 발원해 광주시 광산구까지 총연장 50km에 달하는 하천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박지사, 꺼져가던 4대강 정비 불씨 살렸다

박영준 국무차장 밝혀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정비사업이 발표되기까지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뒷얘기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이명박 정부 초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내며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4일 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 논쟁이 거세게 일자 4대 강 정비사업을 아예 포기하려 했다"고 소개 하면서 "그러나 박 지사가 '영산강 정비는 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며 줄기차게 지원을 요구한 것이 4대 강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해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꺼져가던 4대 강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전남도가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대운하 반대론자에게 막혀 4대 강 정비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뻔 했으며 녹색뉴딜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 공군비행장 무안 못온다" 지역민들 반대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지로 적합하다는 국방부의 용역결과가 발표〈본보 3월 3일자 1·3면 보도〉되자 무안군과 지역민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과 군의회, 무안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은 지난 3일 공동으로 '광주 공군기지 무안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광주 공군기지가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도시 건설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무안국제공항 확장 및 활성화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 밤 10시 이후에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국방부와 광주시가 광주공군기지 무안 이전을 추진할 경우 7만 무안군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범 군민적 이전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분기 마이너스 8%까지…'성장률 쇼크'

대량 실업·기업 도산 '환란 악몽' 다시 오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국내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이는 다시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져 성장률이 환란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1분기 경기침체의 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 때보다 더 깊을 것이라는 게 국내 예측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기침체 국면에 빠지면 대량 실업사태와 기업도산 등 환란 당시에 겪었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성장률 전망 -8%까지=4일 예측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대체로 -4~-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1998년 4분기(-6.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3.4%) 때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계 실물경기 하강 본격화
수출·내수 동반 부진 심각
회복 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1분기 때 내수와 수출이 동반 급감해 작년 동기 대비 -5.6%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동기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상반기에는 대체로 -4~-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3.9%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1분기는 -3%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 전망이 악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터 타격을 받는다. 이미 수출은 지난 1월 33.8%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17.1%나 줄었다. 물론 2월의 수출감소율이 1월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같은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탓이 크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 실물경제의 하강이 본격화하고 수출 부진이 내수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 하강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008년 1분기 때 5.8%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시점도 내년 이후=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시점도 올해 하반기가 아닌 내년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본부장은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가장 믿었던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내 경기는 올 4분기에 저점을 찍고 내년에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 지표상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내더라도 의미는 없다"며 "회복다운 회복을 하려면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 시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는 당분간 바닥이 넓은 U자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실장은 "당초에는 U자형의 모양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국내 경기는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보이더라도 지표상의 변화일 뿐 실제 체감 측면에서 보면 갈고리형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막히고 내수가 부진해지면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경을 통한 과감한 재정지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통분담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연합뉴스